

여성의 취업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분석

민 현주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목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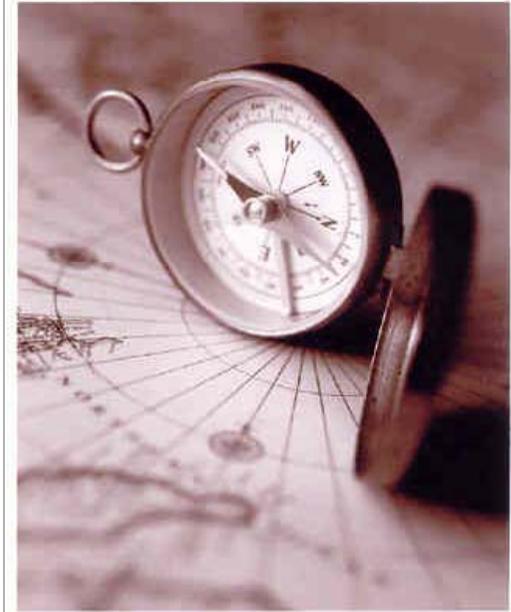
I. 연구배경

II.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

III. 분석자료 및 방법론

IV. 연구결과

V. 결론 및 토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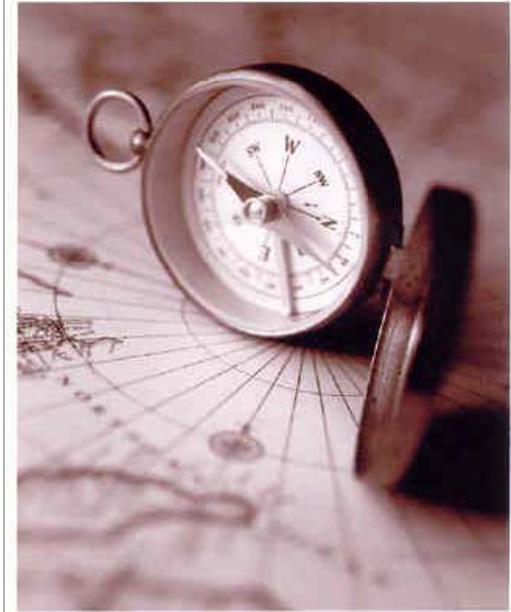
1. 연구배경

1. 연구배경

- 왜 여성의 취업과 낮은 출산율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는가?
 - 평균적으로, 일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.
 - 여성취업과 출산율(출산간격을 포함)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.

● 왜 출산간격이 중요한 문제인가?

- 출산간격은 일하는 엄마들의 정서적 · 경제적 안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:
넓은 출산간격을 갖는 일하는 엄마들은
 - 낮은 이혼율을 나타내며(Murphy 1985),
 - 보다 높은 지위의 일자리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,
 - 무엇보다,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(Groat, Workman & Neal 1976).
- 출산간격은 엄마들 뿐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
 - 좁은 형제터울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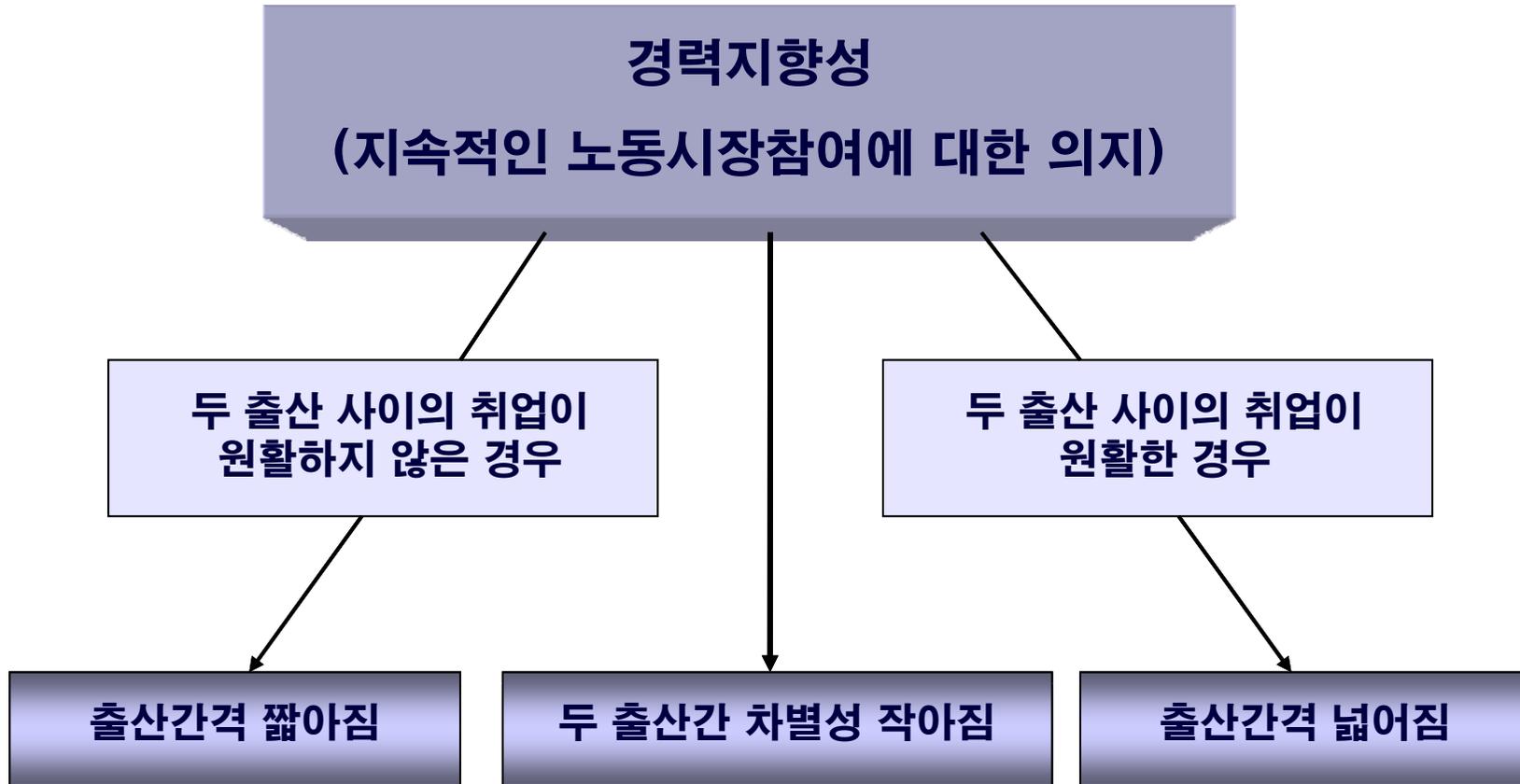
II.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

II.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

- 일 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간격을 좁힘으로써 자녀출산시기를 빨리 마감하고 취업단절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(Keyfit 1980).
- 일 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간격을 가능한 길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고, 이는 단절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한다(Ram & Rahim 1993).
- 여성취업과 출산간격간의 단선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기 보다는, “근로조건”이 위의 두 가지 출산간격 전략 중에서 출산으로 인한 여성취업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(Brholchain 1985, 1986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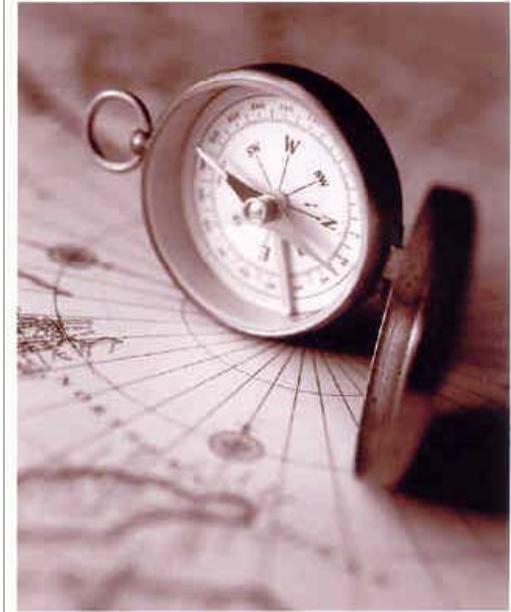
II.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

〈그림 1〉 Bhrolchain의 여성취업과 출산간격에 관한 모델



III.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

- **엄마의 취업과 자녀태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?**
 - 엄마들의 취업이 첫째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 출산시기까지의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.
- **근로조건- 근로시간, 임금, 근로형태 등- 과 일 지향성이 자녀태울에 영향을 미치는가?**
 - 취업한 엄마들이 경험하는 근로조건이 어떻게 다음 자녀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.
 - 높은 경력지향성을 갖는 엄마들의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관하여 분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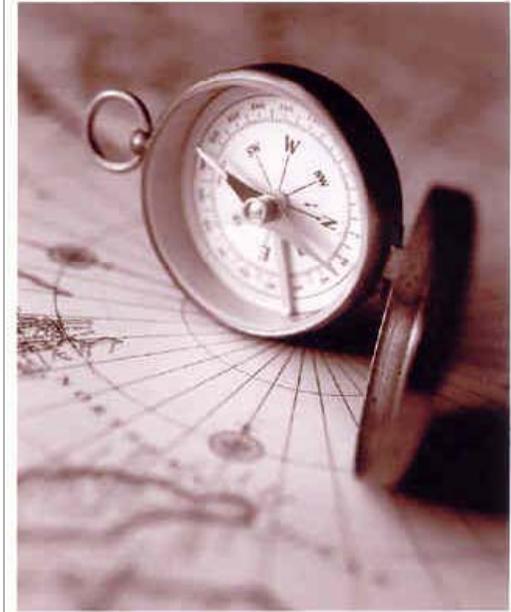
III. 분석자료 및 방법론

III. 분석자료 및 방법론

- 한국노동패널 1998-2004
 - 합계출산율 산정의 바탕이 되는 만 15세부터 49세 여성.
 - 개인들의 출산력을 포함하는 가족력과 취업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수록.
 - 시간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출산 및 취업력 파일(Person-file with time-varying covariates) 구성.
- 시간연속적인 사건사 분석 모델(Time-continuous Proportional Hazard Event Historical Model)

$$h_i(t) = h_0(t) * \lambda_i, \text{ where } \lambda_i = \exp(X_i \beta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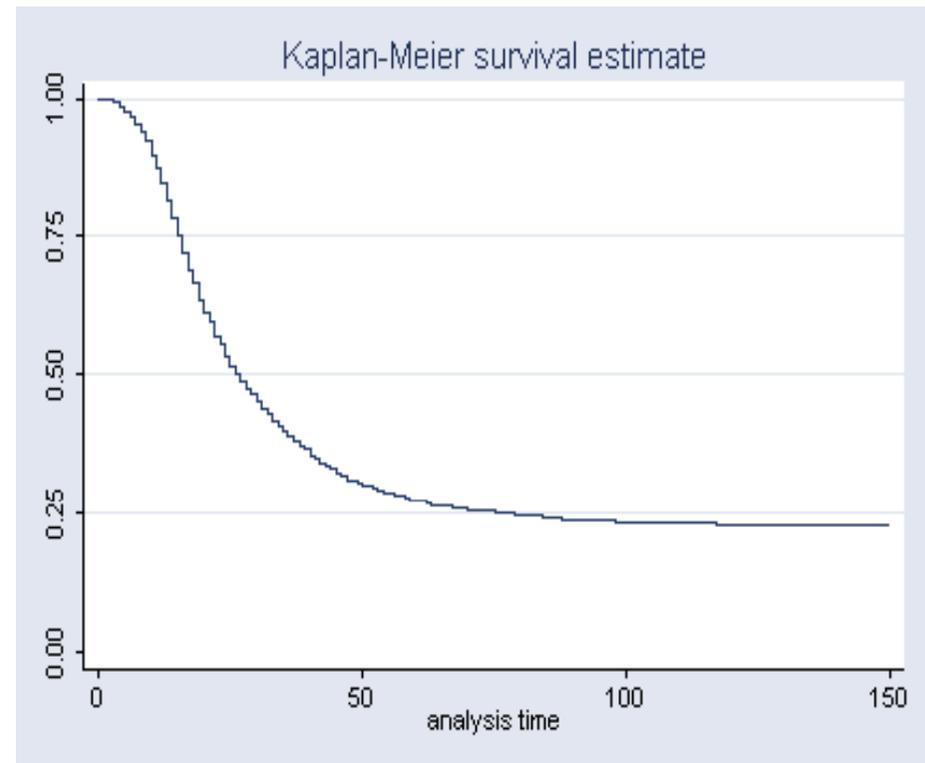
*$h_0(t)$: base hazard rates, X_i : individual characteristics,
 β : coefficients, λ_i : baseline hazard rates at time t*



IV. 연구결과

- 분석에 포함된 여성들은 총 3217명이며, 이 중 첫째 아이 출산 후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은 734명.
- 분석에 사용된 총 관찰주기수는 8773사건이며, 취업엄마들의 관찰주기수는 2019사건.
- 이들 중에서 둘째 아이 임신을 경험한 엄마들은 전체대상에서는 2384명이며, 취업한 엄마들 중에서는 232명.
- 첫째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값은 약 27개월.
 - 비교: 미국여성들의 출산간격은 약 4년 (Suchindran & Koo 1992).

<그림 2>Kaplan-Meier 생존분석



- 첫출산 연령이 높을 수록 둘째 출산을 빨리 계획한다.
- 서구와는 달리, 첫출산 당시 결혼여부는 이후의 자녀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엄마들의 취업은 둘째 자녀임신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경력지향성과 상관없이 첫 번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취업경험은 일과 가정의 갈등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, 따라서 엄마들에게 좁은 자녀터울은 매력적인 가족계획이 되지 못할 수 있다.

(취업기간 동안의 출산간격에 대한 분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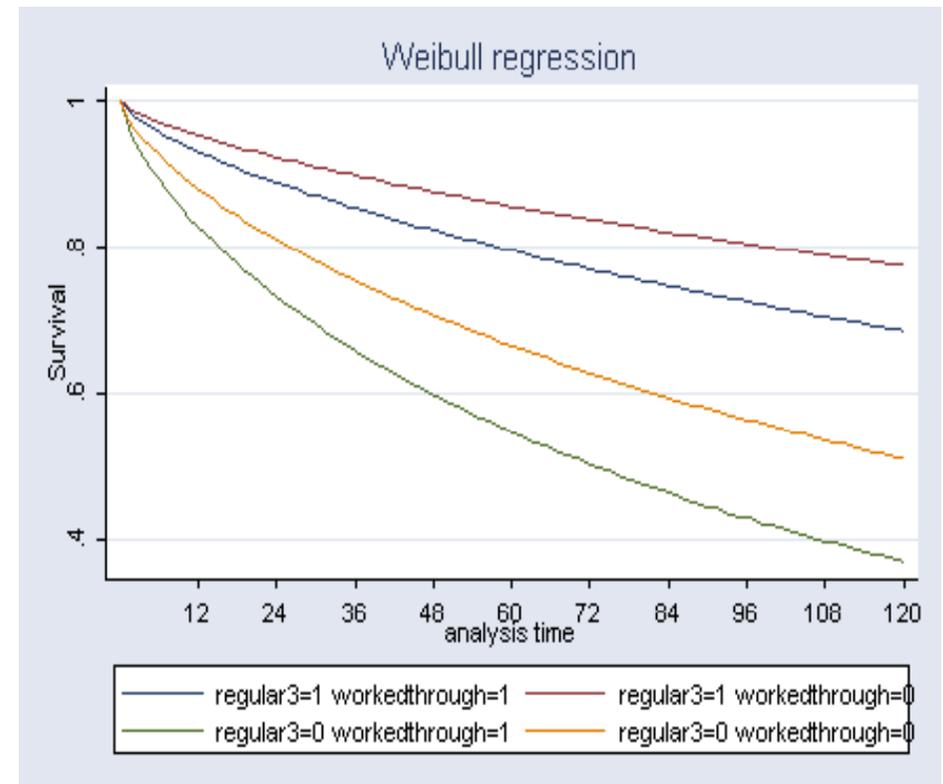
- 주당 근로시간이 길 수록 둘째 아이를 갖는 시기가 늦어진다.
 - 취업과 자녀양육의 병행이 어려울 때 둘째 자녀를 늦게 계획.
- 비정규직에 취업한 엄마들은 정규직의 엄마들보다 더 늦게 둘째자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취업안정성이 낮을 경우, 엄마들은 추가적인 자녀계획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남.
- 일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엄마들이 그렇지 않은 엄마들보다 둘째 자녀를 더 빨리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첫 번째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엄마들은 이후의 출산도 출산과 함께 취업단절을 경험한 엄마들보다 더 빨리 두 번째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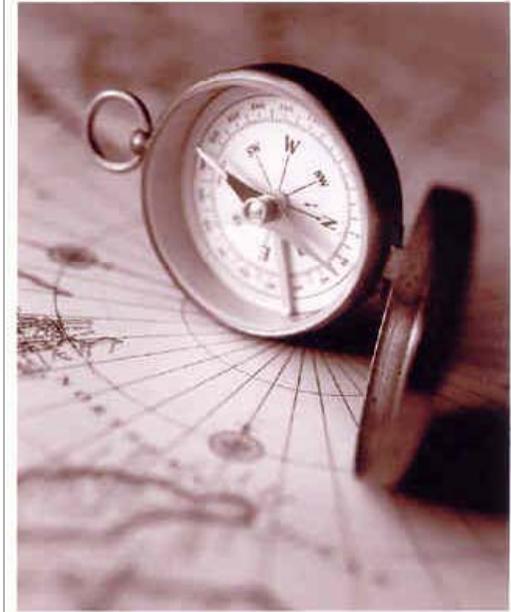
2. Weibull 모델 결과(3)

IV. 연구결과

-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,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정규직에 취업해 있으면서 높은 취업연속성을 보인 엄마들이 가장 빨리 둘째 아이를 계획한다.
- 반면, 출산으로 인한 취업단절을 경험하고 첫째 아이 출산 이후 비정규직에 취업엄마들이 가장 늦게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보다 좋은 일자리에의 취업과 엄마들의 강한 경력지향성이 일하는 엄마들의 가족형성계획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〈그림 3〉 근로형태와 경력지향성에 따른 둘째 자녀 출산 생존율





V. 결론 및 토론

V. 결론 및 토론(1)

- 본 연구는 역동적 시각(dynamic process)을 도입하여 여성취업과 첫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임신까지의 기간을 분석.
 - 합계출산율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‘학습과정’에 의해 단계별로 차별화되는 의사 결정과정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.
-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력을 포함하는 가족형성력과 취업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.
- 오랜근로시간의 부정적 효과로 설명되는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추가적인 자녀계획을 늦추는 효과를 갖는다.
- 반면, 엄마들의 취업안정성은 둘째 자녀를 빨리 계획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.
- 또한 강한 일의 지속성을 보이는 엄마들도 그렇지 않은 엄마들보다 더 빨리 둘째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

V. 결론 및 토론(2)

- 본 연구결과는 자녀터울은 어느 한 시점에서 형성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출산 이후 자녀양육과 취업의 경험 속에서 “적응의 전략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.
-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,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초저출산율의 문제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 -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
 - 집중적인 자녀양육시기 동안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적용